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BK21 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다문화인문학 시민강좌 시즌 03

다문화 사회의 시민과 타자지향성

2021.02.25

인하대학교 김영순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인하대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인하대 BK2 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1. 시민은 누구인가?

-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것이고,
- 두 번째 문제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콘텍스트로 표현되는 세계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다. '알아나가는 것'과 '파악해 나가는 것' 모두 자신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으로 대변될 것이고, 사회학에서는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시민은 누구인가?

• 시민의 의미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공동체와 로마의 공화정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그리스에서 시민의 자격은 본토 출신 성인 남성들에만 한정됨으로써 지역적 및 계급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원래 로마는 다수의 피정복 외국인의 유입으로 시민의 구성이 더욱 다양하였다.
- 이처럼 공동체의 정치권력 주체로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시민혁명에 와서 민주주의 자결권으로 연결되었고, 왕조 국가 체제를 타도하는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 그런데 근대에 들어 직접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로 대체됨에 따라 19세기의 시민 개념에는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공화주의와는 연관이 희미해졌다.
- 따라서 시민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시민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권을 갖춘 가운데 자율적 결정에 따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1. 시민은 누구인가?

▪ 시민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

- 국민, 시민 모두 국가의 구성원들로 말하자면, 전체로서는 국민(people)이라 하고, 국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권 참여자로서는 시민(citizen)이라고 한다. 이런 시민과 국민에 대한 개념은 20세기 들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성의 강화로 인해 시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국민국가의 영토 주의 안에서 제약받게 됨
- 다른 한편 최근 들어 급속하게 진전된 전 지구화의 추세와 초국적 이동으로 국가성과 영토성이 희미하게 되었고 국민의 개념은 정치·행정적인 의미로 축소됨
- 즉 시민을 이제는 특정 국가나 영토에 갇히게 할 수 없게 됨. 동시에 '국가 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진화시키는 문제가 21세기 시민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함

1. 시민은 누구인가?

- 학문수행자로서의 시민

- 학문수행자는 학문을 갈고닦는 '수행자'의 일종임

- 수행자는 종교적 개념으로 '해당 종교의 교리를 좇아 삶을 살아가는 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그렇지만 여기서는 인간이 세상에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 그럼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이는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임.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 의미에서의 인간과 시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함.

1. 시민은 누구인가?

인간의 개념

-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로서 이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
- 주목할 것은 '사회적', '이성'이라는 개념. 사회적이란 인간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고, 이성이라는 개념은 세상 인식의 주체라는 개념이 강함.
- 이 주체에 대한 문제와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적 문제로 소급됨

1. 시민은 누구인가?

인간의 개념

- 칸트의 비판철학 :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 이성(이성)은 상위능력으로서 지성과 감성을 통제하에 두고 감성의 시간과 공간을 직관 형식으로 하는 현상을 수용함. 그뿐만 아니라 순수 지성을 발동시켜 협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과적 인식을 산출하는 능력임.
- 이성(이성)은 자기비판의 능력을 지니기에 신과 내세, 즉 영혼의 불사,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는 단언을 자제함.
- 하지만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 그러한 제한을 넘어서는 권능을 스스로 인정하고 도덕 법칙의 정립자가 된다. 나아가 인간은 이성의 확장으로서 판단력을 갖게 되며, 이 판단력은 자연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완성에 있다.”고 판단함.
- 3대 비판서 :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1. 시민은 누구인가?

수행적 인간으로서 '타자지향적 시민'

- “어떻게 이성적 사유에 이르는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인격을 완성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것임
- 칸트에서는 '사회적'이라는 개념 즉 주체와 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그는 타자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타자와 내가 어떻게 관계 지어질지, 나 역시 타자가 아닐지 등에 관한 사회적 질문과 고민을 제시하지 않았음
- 이것에 관한 답은 단순하다. 수행적 인간으로서 시민이 바로 이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라는 주장이다. 수행적 인간은 학습과 교육 행위를 통해 완성되어감.
- 시민이 되어 간다는 것은 학문의 본래 의미인 '배우고 묻는' 행위를 하는 인간의 학문적 수행성을 의미함

2. 학문과 학문수행자

• 학문의 의미

- '지식체계로서의 학문'과 '활동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음. 지식체계로서의 학문은 이제까지 어떠한 분야의 학자들이 발견하고 축적해 놓은 개념을 중심으로 함.
- 다른 한편 활동으로서의 학문은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함. 이를테면, 현재 시점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축적해 놓은 개념과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활동을 함.

2. 학문과 학문수행자

학문의 의미

- '지식체계로서의 학문'과 '활동으로서의 학문'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음. 지식체계로서의 학문은 이제까지 어떠한 분야의 학자들이 발견하고 축적해 놓은 개념을 중심으로함.
- 활동으로서의 학문은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이를테면, 현재 시점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축적해 놓은 개념과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활동을 한다.

2. 학문과 학문수행자

학문의 의미

- 한자로는 '學問', 영어로는 'Science', 독일어로는 'Wissenschaft'
- 단어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學問은 표현 그대로 '배우고 물음'으로써 진정한 앎에 접근해간다는 의미임. 또한, Science는 과학이라는 뜻으로도 학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됨. 이를테면, 인문과학(Human Science), 사회과학(Social Science), 자연과학(Natural Science)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각 학문 뒤에 붙는 'Science'는 바로 해당 학문이 넓은 의미의 '과학'임을 뜻함
- 독일어의 Wissenschaft란 말은 원래 학문을 칭하는 말이지만, 알림, 통지, 보고라는 뜻을 함께 갖는다. 마치 '활동으로서의 학문'을 통해 결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을 연상케 함.

2. 학문과 학문수행자

학문의 의미

-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학'이고 그 지식을 주체적으로 이해하여 진정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반문(反問)하는 것이 '문'이라고함
- 유대인의 자녀 교육방식 중 하나가 바로 묻는 것이라고 한다. 유대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로부터 귀가하면 바로 "오늘 학교에서 무얼 물었니?"라는 질문을 함.
- 불가에서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던 선문답(禪問答)에서도 물음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음. 선문답은 대화의 형태로 깨친 스님과 깨친 스님 사이의 질문과 답이나, 깨친 스님과 의 질문과 답을 통해 깨치지 못한 스님이 깨침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질문과 답은 논리적으로 깨칠 수 있거나 어떤 이치로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님. 대답한 뜻이 오히려 질문보다 더 크게 우리를 미궁 속에 빠지게 함. 의심하여 질문하고 이 의심을 타파해야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

2. 학문과 학문수행자

-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도하던 그렇지 않던 배움의 '학'과 묻는 '문'의 과정을 거침.
- 가정의 사회화, 학교에서의 학습과 교육 활동, 직장에서의 재사회화 모두 배움의 과정이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면 인간은 생애 전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존재로 역할 함.
- 교육학에서는 이를 평생교육이라고 하거나 사회교육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앞 절에서 상정한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 즉 학문수행자로서 시민이 탄생하게 됨.
- 그렇다면 이 학문수행자로서 시민은 어떤 역량을 지녀야 하는가?

2. 학문과 학문수행자

- 학문은 지식을 포함하는 데 어떤 지식이든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없고 항상 일정한 둘레를 지닌 만큼 그 한계를 알아야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이렇게 보면 학문을 수행하는 자, 즉 학자가 어떤 지식을 마주함에 있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대할 때 비로소 참된 나의 지식이 될 수 있음.
- 이것이 학문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학문수행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자는 이 책에서 의미하는 학문수행자로서 시민이 됨.
- 이를 역으로 말하자면 학문 수행을 하는 모든 시민은 학자이며 연구자이다.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연구자 혹은 학자로 칭하는 것은 학문 수행을 모르는 사람의 논리임.

2. 학문과 학문수행자

- 공자는 <논어>를 시작하면서 '학(學)'이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학문을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고 강조하였음.
- 이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물음을 던진다. 그래서 학은 물음으로 시작하고 물음으로 매듭지어진다. '익힌다'는 뜻의 '習(습)'이라는 한자는 새의 날개와 숫자 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백번 익혀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배운 것을 내 삶에 바로 적용해보는 자세를 말한다. 이는 바로 학문수행자로서의 시민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학문과 학문수행자

- 우리는 '학자'나 '연구자'라는 칭호를 너무 고고하게 사용해 온 것은 사실임.
- 흔히 학자란 학문 체계를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학문의 체계인 지식과 경험을 개념화하고, 연구방법을 터득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이해해 왔음.
- 독자들은 앞으로 학문수행자로서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한다면 감히 연구자라고 말해도 좋을 것임.
- 이를테면 유교 전통을 반영한 묘지의 비석에 쓰여 있는 '학생 ○공 ○○지 묘'를 쉽게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유교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는 모든 양반은 배우는 학생인 것으로 표상되었음.
- 학문수행자로서 시민을 상정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전통이니 새삼스럽게 볼 일은 아님.

2. 학문과 학문수행자

- 학문수행자로서 시민을 연구자라고 상정한다면 연구자는 일상생활을 연구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연구자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 흔히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질문에 답을 잘 줄 수 있는 연구 접근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연구를 준비하는 연구자는 먼저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현상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임. 연구수행과정에서 이를 연구자의 관점(perspective) 혹은 입장(position)이라고 함.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하자면 철학적 패러다임 혹은 이론적 렌즈라고 함.

그래서

타자지향성이 요망됨

3. 타자지향성_후설

- 감정이입적 타자 이해는 직접적 지각인 외적인 신체 지각을 토대로 한 일종의 경험임
-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세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의도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해 줌
- 즉, 타자들의 표현적 행동과 유의미한 행위에서 그들의 정신적 삶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

3. 타자지향성_후설

- 지향적 측면에서 이러한 짝지움(Paarung)은 타자에 대한 이해의 패턴이 어떤 침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그럼으로써 이 이해의 패턴이 사후적 타자와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리고 이 때 이 짝지움에 대한 의미의 전이는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상호 전이임(Husserl, 1950).
- 서로 구성적으로 짝지워 짜여 있음은 자기와 타자가 서로에 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Husserl, 1973), 이 상호전이적 경험은 자기 혼자만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경험인 것임(Zahavi, 2014).

3. 타자지향성_후설

- Husserl의 타자에 대한 논의는 인식 주체가 어떻게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단순히 물리적 대상이 아닌 자신과 같은 동등한 인식 주체로 파악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래서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경험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필요함.
- 특히 그 이해가 복잡한 심리 현상인 경우 타인의 이해를 위해 더욱 경험을 나누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적 타자의 이해'는 신체 지각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상호적 공유성을 지니게 됨

3. 타자지향성_후설

- 이렇게 각 주체들이 타자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 경험인 공동 마음(common mind)이 상호주관성임
- 나의 지각들은 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실재하는 존재로서 주관성을 제시하고, 이는 대상들, 사건들, 행위들을 나의 사적인 것이 아닌 공공의 것,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서 상호주관성을 설명함
- 즉, Husserl의 상호주관성은 개인적 의식 혹은 자아가 아닌, 공동체적 의식 혹은 공동체적 자아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을 출생과 동시에 상호주관적 존재로 설명함

3. 타자지향성_하이데거

-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이미 어떤 세계에서 타인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실존 (Existenz)의 현사실에서 타자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
- 현존재는 세계 이전에 또는 세계 바깥에, 세계와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고 세계 안에 존재 함
- “현존재의 존재 이해 속에는 이미, 그의 존재가 공동 존재(Mitsein)이기에 타자의 이해가 놓여있다.”(SZ 123) 하이데거의 사유는 그 모든 존재자의 문제가 걸려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물음에 부치는 인간의 관계적 본질이 우선적으로 문제시 됨.

3. 타자지향성_하이데거

- 하이데거의 '현존재'(Dasein)는 자신의 존재를 물으면서 자기의 존재에 개방적이고, 관계적인 가능존재임. 그의 이러한 근원적인 인간 이해를 타자존재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됨.
- '나와 함께 타자 또한 실존한다.' '나와 함께 타자 또한 공동현존재이다.'
- '나와 함께 타자 또한 세계 - 내 - 존재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없는 단순한 주체란 우선 >존재<하지도 않고, 결코 주어져 있지도 않다. 마찬가지로 결국 타자 없이 고립된 자아도 우선 주어져 있지도 않다."(SZ 116)
- 동시에 "타자는 스스로 현존재의 존재양식을 지니고 있다."(SZ 124)
- 따라서 타자는 나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구성되는 존재자가 아니라, 타자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실존하는 현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타자도 나와 같이 1인칭으로서 간주될 수 있음

3. 타자지향성_하이데거

- 그의 본질이 주 - 객 - 연관 안에 놓이는 그런 존재자가 아님. 오히려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의 본질상 존재의 열려있음은 안으로 탈 - 존재 있으며, 이 열려있는 장이 주체와 객체의 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사이를 비로소 비추어 주는 것임.
- 나와 타자는 공히 현존재로서 사물, 도구, 타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세계 안에 거주하는 존재임.
- 다시 말해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가 사물적 존재자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도구존재를 배려(Besorgen)하고, 그가 만나는 타자존재를 고려(Fürsorge)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염려(Sorge)하고 있음을 의미함.

3. 타자지향성_하이데거

- 나의 현존재는 자기존재(Selbstsein)와 공동존재(Mitsein)이다. 타자의 현존재도 또한 자기존재와 공동존재이다. 여기서 자기존재와 공동존재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 본래적으로나 비본래적으로 타자 없는 나의 존재가 성립하지 않으며, 동시에 나없는 타자의 존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 안에서 누구나 사물과 도구 곁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
- 그러하기에 공동존재는 세계 - 내 - 존재의하나의 실존론적 구성요소이다.
- 더욱이 "현존재의 근본구성들에 세계내존재가 속하기에 실존하는 현존재는 본디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서의 존재함으로서의 공동존재이다."(GA24, 394) 더욱이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는 공동존재의 근본들을 지닌다."(GA20, 331)

3. 타자지향성_메를로-퐁티

- 후설의 타자는 그 역시 선험론적 주관이요, 이 자격으로 그는 세계가 나에게 낯설게 만들고, 내가 대상으로서 나타날 타아들이 거주하는 세계를 나에게 허락 함.
- 이때 타인은 사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음.
- 그래서 나는 타자에게 '간접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몸과의 연관'을 떠나지도 못하는 것임.
- 바로 여기에 타자로의 접근이 지닌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결국 후설에게는 살아있는 몸들을 '존재론적으로' 이어줄 '공통의 너울' 즉 '소통의 살'이 없음.

3. 타자지향성_메를로-퐁티

- 메를로 - 퐁티는 감각이 존재자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반사적으로 긴박하게 발생한다는 <가역성>과 이러한 상호성이란 존재자들 서로가 애초부터 로만 십자형(X) 사이사이로 밀접히 얽혀 있듯 기능한다는 <키아슴>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살'의 이념을 타인의 지각에 적용함으로써 후설이 초래한 내적 모순을 극복하게 됨.
- 살은 '구체적' 상호주관성, 다시 말해 '실질적' 상호주관성인 상호신체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긴박하게 교대되는 가역적 감각성을 보장하는 상호신체성이란 주체들 각각의 체현이 이루어지는 존재론적 격자인 "세계로 열린 존재"를 통해 신체주체들을 실질적으로 연속시키고 있음.
- 주체들의 '만남'이란 주체들 '각자'에게서만 일어난 사태보다 우선되고 또 그들 각각의 대자존재에게서 발생한 바를 능가하는 것임.

3. 타자지향성_사르트르

- 인간의 유일한 본질로서 '자유'를 내세움으로써 마주하게 된 도덕적 방종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르트르는 선택의 '보편성' 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 개별자인 나의 선택이 곧 인류의 초상화를 그리는 선택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택은 곧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전체 내에서 나를 비롯한 인류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음. -> 세계 시민적 구상
-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렇듯 '보편적 선택'이며, 타인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는 것이 라면 이로부터 손쉽게 윤리의 가능성이 도출되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문제는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단순한 동류의 관계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음.
- '타인은 지옥이다' 같은 그의 유명한 문장에서 드러나듯, 사르트르는 헤겔 식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착안하여 대타 관계의 기본 구도를 갈등 관계로 설정함

3. 타자지향성_사르트르

- 사르트르에게 있어 대타 관계는 시선과 시선 사이의 투쟁으로 형상화 됨.
- 타인의 시선은 나의 가능성을 빼앗고 자유를 탈취한다. “나는 타자의 시선을, 나의 ‘행위’의 한복판에 있어서, 나 자신의 모든 가능성의 고체화 및 타유화로서 파악한다.”(Sartre 1965, 447)
- 내가 지향적 의식의 활동을 통해 타인을 대상화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있어 타인은 언제 터질 지 알 수 없는 폭발물처럼 위험한 대상으로 여겨 짐.
- 언제든지 이 구도는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방심하는 어느 한 순간에 타인은 자신의 지향적 의식을 통해 나를 대상화할 가능성이 있음
- 그 때문에, 영원한 주체도 객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타자를 객체로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시선의 투쟁은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음

3. 타자지향성_레비나스

- 단지 사르트르가 대타 관계를 투쟁적 구도에서 이해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그가 '주체성'의 시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임.
- 흥미롭게도 사르트르와 유사한 타자 이론을 수립하고 있는 레비나스 (Emmanuel Levinas) 의 경우에는 대타 관계의 갈등적 구도가 문제로 작용하지 않음
- 사르트르와 레비나스는 공통적으로 타자와 마주하는 면대면의 구도를 제시하며,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타인과 주체는 비대칭적인 관계성을 가짐.
-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레비나스 또한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을 거머쥐고 흡수하려는 주체의 탐욕스러운 본성에 대해 거론하며, 역으로 타자에 의해 주체가 장악력을 잃게 되는 국면을 인정함

3. 타자지향성_레비나스

-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주체가 된 '타자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 되어 버린 '나'가 출현했음
- 이처럼, 레비나스에게 있어서는 약자,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에 의해 '나'가 출현케 되는 것임.
- 단지 사르트르는 이 구도 내에서 주체의 탄생을 그려 보이고 있으나, 레비나스는 책임을 지고 대속을 하는 절대적인 수동성 속의 응답자로서의 나의 탄생을 말하고 있음
- 표현적 측면에 있어서만, 사르트르는 '주체'의 탄생을, 레비나스는 '대상'의 탄생을 말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매커니즘에 관한 진술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음.
- 이 비대칭적인 투쟁적 관계가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늘 '전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이 비대칭성의 경사각이 결코 전환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됨

3. 타자지향성_레비나스

- 타자의 부름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탄생을 그려 보이는 레비나스의 논의는 그 자체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윤리학적 성격을 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달리 언제나 역전 가능한 갈등 구도 속에 위치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나는 타인을 다시금 대상화하고, 소유하고, 거머쥘 수 있는 주체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그려짐.
- 이처럼 레비나스가 윤리 학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체성'을 버림으로써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어떻게 이 '주체성'을 간직하면서도 윤리적 층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3. 타자지향성_정리

- 후설: 타자지향성(의도성), 무엇의 대상이며 마음 속에 있음, 짝지움
- 하이데거: 타자와 존재, 현존재와 공동 존재, 세계-내-존재
- 메를로-퐁티: 타자와 감각, 지각과 소통
- 사르트르: 타자의 시선
- 레비나스: 타자의 얼굴

3. 타자지향성_논의(정리)

- <타자>의 존재는 철학적 반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로서 현상학에 의해 처음으로 부각된 주제들 중 하나임.
- 후설의 타자론은 이른바 '자기이입'론으로서 우리의 타자 경험에 대한 지향적 분석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지만, 동시대의 이른바 '자기이입'론{일반적으로는 '감정이입'으로 번역된다}과는 달리 거기서는 단지 세계 내부에 있는 인간과 그의 사회 관계가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계기의 하나로서 타자가 어디까지나 초월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로 된다.

3. 타자지향성_논의(정리)

- 다시 말하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타자에 대한 경험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임.
- 자타(自他)의 인간관계는 서로 타인을 부정하는 상극관계(相剋關係 :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지만 M.부버나 G.마르셀은 자타의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를 구별하여, 전자의 관계에서 타자는 '나'에 대한 2인칭인 '너'이며, 후자의 관계에서는 타자가 3인칭으로서의 '그'나 '그것'이며 거기서는 타자의 인격이 '나'에 의하여 대상화(對象化)되고 물화(物化)된다고 생각함.